

통합당에 '추월' 당한 민주당 발각

통합 36.5% 민주 33.4%...호남마저 11.5% 빠져
 與 “총선 후 악재 탓...상황 요인 사라지면 반등”
 강성친문 방어선 “文 레임덕은 보수세력 기대”
 우려 확산...박주민 “국민의 경고” 이재명 “채찍”
 자성 목소리 “성난 민심 받아들여야...바닥 아냐”

미래통합당에게 끝내 정당 지지율을 추월당한 더불어민주당이 발각 뒤집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시적 현상'으로 선 선거에 나섰다 4·15 총선 압승 후 잇따른 악재에 정부·여당 지지율이 추락을 거듭한 끝에 극심한 민심 이반 징후가 드러난 충격적인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위기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8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상승한 36.5%로 나타났다.

통합당 전신 새누리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6년 10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후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경기·인천, 호남,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 30·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통합당에 뒤처졌다.

특히 지지율 추월은 정부·여당의 최대 지지기반이던 호남에서마저 11.5%포인트가 하락하며 40%대로 주저앉은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당 지도부는 최근 수해가 강타한 호남을 연일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민심에 구애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부동산 파동, 성추행 의혹 후 사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의 잇따른 추문,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등이 겹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축소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이혜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회관 일대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후에 우리 당으로서선 악재라 할 게 누적되고 지속돼왔지 않나”라며 “이런 일들이 누적되며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사나워진 것이고 그런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략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황적 요인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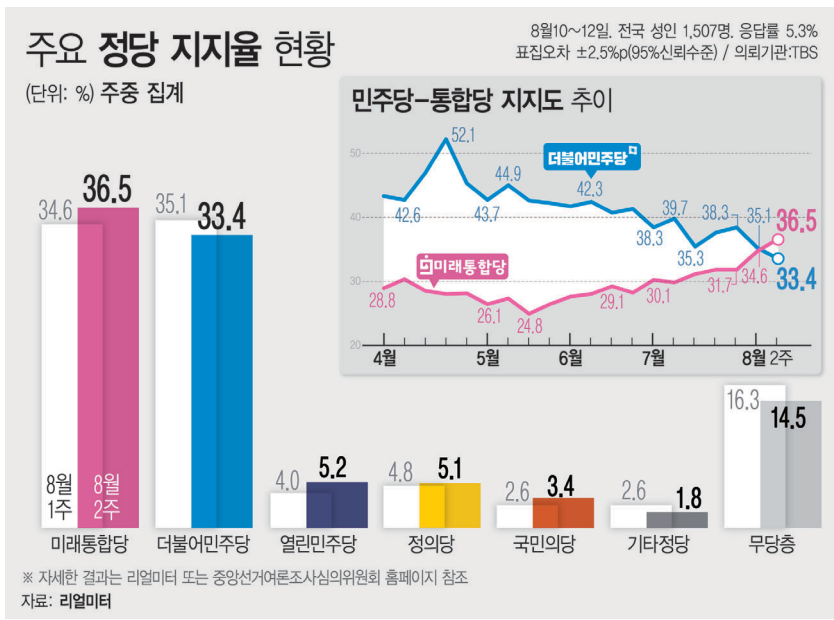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강원도 철원 호우 피해지역 봉사활동 중 만난 기자들이 당 지지율에 대해 묻자 “지지율은 항상 변하는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이혜찬 대표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 역시 뉴시스에 “여론조사란 건 오르내리고 기복이 있기 마련”이라며 “통합당이 잘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수권정당으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도 부동산 문제 등에서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오히려 뒤처졌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들었다.

청와대 참모 출신을 비롯한 강성 친문 의원 일부도 이 같은 인식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이들은 지지율 하락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우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방어선을 쳤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레임덕은 보수세력의 기대일 뿐”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하락했던 국정지지율을 지지 요인으로 깔고 레임덕을 거론하고 있지만 몇 달 사이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지지율 추이를 근거로 레임덕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당내 레임덕 우려 기류를 다룬 조선일보 보도를 거론한 뒤 “대통령을 아프게 공격할 의도로 구중구결, 레임덕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취재원으로 등장한 수도권 의원 두 사람 모두 의명의로 처리했다”며 “민주당 17%명의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2주차 주중 잠정 집계 결과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36.5%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33.4%)을 역전했다.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도를 앞선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의원들 중에 저런 표현을 입에 담은 의원은 없었는지 생각하며, 설령 그런 의견을 가졌다면 이름을 걸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3선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각설하고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걱정, 민주당 걱정을 할 리가 있는가”라며 “망해라, 망해라 주문을 외우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당권주자와 유력 대선주자들은 민심 이반 징후에 극한 위기감을 드러내며 맹성을 촉구했다. 박주민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우리 당에 보내는 국민들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당이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진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반성한다”며 “달라지겠다. 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창구를 늘려 가겠다. 사회적 대화와 협의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는 기회로 삼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열린 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몸을 낮췄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정치는 언제나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는

데 좀더 그런 노력을 많이 해달라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퉈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부동산 파동 등에서 민심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위기 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너무 우리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중도층의 여론이 악화되는 것 같고 그 사이 누적된 부동산과 박 전 시장 등이 종합된 결과”라며 “검찰개혁 관련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도 굉장히 반응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서울지역 재선 의원은 뉴시스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수치로 드러나는 게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 성난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에 근거해 어떤 대책 가질건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내 관계자는 “역전될 줄은 이미 알았다. 부동산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고 잘 분석해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부동산에 문제에 서울과 30·40대 등 비교적 우리 당 지지층에서도 이탈한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당이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안 갈 수 없었다”며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고 본다. 더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文대통령, 노영민·김외숙 사표 반력

김조원·김거성·윤도한·강기정 수석 등 4명만 처리

청와대는 12일 수석비서관 후속 인사가 일단락 됐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6명의 참모들 중 김조원 민정수석·김거성 시민사회수석·윤도한 국민소통수석·강기정 정무수석 등 4명의 참모를 교체하는 것으로 매듭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노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수석급 인사는 일단락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락됐다는 것이 (사표) 반려 결정을 했다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의 표명을 하였고 인사 발표가 있었다”며 “일단락됐으니 그렇게 해석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종호 민정수석, 최재성 정무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을 새로 임명한 뒤 이틀 만에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윤창렬 사회수석을 교체하는 등의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인사를 끝으로 ‘참모들의 집단 사의 표명’과 관련한 조치는 완료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사표 제출과 관련해 12일까지의 수석급 인사 교체를 한 흐름은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 임명된 신임 수석들은 이날 오전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사실상 비서실 내 새 진용이 꾸려진 상황에서, 노 실장의 거취를 보다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유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통합당 “유임? 갑갑한 ‘고구마’ 인사”

“‘집’과 ‘직’ 거래되는 현실에 국민들 냉소”

미래통합당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임 결정을 두고 “아무 설명 없는 오늘 유임 결정도 고구마 먹은 듯 갑갑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과 ‘직’이 거래되는 듯한 현실에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OECD 전망 올해 성장률 1위에 흥분되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도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마로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 경제팀, 내각 경제팀도 고집스런 유임시킬 듯하다”고 개탄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